

[오션브릿지 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

■ 일반사항

구분	정기주주총회
일시	2017. 03. 24 (금)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향공단길 49 오션브릿지(주) 2층 식당

■ 상정 의안

No.	의안
제1호	제5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추가의 건 포함)
제3호	이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목해야 할 의안 분석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안 내용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만 발췌함)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신설	제 35 조의 2(사내이사의 자격 제한) 사내이사는 회사 주식 3%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1 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신설	제 38 조의 2(대표이사의 자격제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1 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며, 회사와 동종업계에서 3 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에 한한다.
신설	제 46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③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에는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금으로 정액으로 30 억원과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 합산 금액은 100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분석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자격을 회사 주식을 장기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하는 것이며, 적대적 M&A 등에 따른 이사 해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자격을 3%, 5% 이상의 회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탁월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을 방해하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함. 더불어 최대주주 중심의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아울러 대표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는 경우 막대한 퇴직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정관 조항의 신설 역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신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기존 최대주주의 권익이 과도하게 보호되는 반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권고함.